

## 오키나와 빅매치 '봄비의 심술'

# KIA-삼성 '진검승부' 무산

日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호랑이와 사자의 진검승부가 비에 무산됐다. 7일 오키나와 아카마 구장에서 예정됐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연습경기가 비로 취소됐다.

이날 경기는 새 사령탑을 앞세운 KIA와 올 시즌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는 삼성의 '오키나와 빅매치'로 꼽혔다. 한화 캠프에서도 프런트를 과경하는 등 기대를 모은 경기였지만 하늘이 돕지 않았다.

오후 1시 경기 시작을 앞두고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차례 선수단이 그라운드에서 철수를 했다. 빅매치를 위해 양팀 모두 비가 찾아올 것을 기다렸지만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KIA와 삼성 선수단은 경기 시작도 못하고 집을 싸야했다.

전력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지훈련 막바지에 치러지는 경기인데다 이날 양팀 모두 필승라인업을 내세웠던 만큼 관계자들과 팬들에게는 아쉬운 우천취소가 되고 말았다.

서재응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이날 이용규와 안치홍으로 테이볼 세터진을 구성하고, 장판지 근육이 좋지 않아 앞서 두 경기를 친



7일 KIA 선수들이 폭우를 피해 덕아웃에 앉아있다.

나지완을 지명타자로 투입해 이범호-김상현-나지완으로 이뤄진 클린업트리오를 짰다.

또 신종길-김원섭 두 외야수에 이어 송산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김선빈을 9번에 넣어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다.

삼성도 정인욱을 선발로 베스트 멤버 가동을 준비했다. 류중일 삼성 감독은 신인왕 배영섭을 톱타자로 해서 박한이를 2번에 넣고 이승엽-최형우-박석민으로 이어지는 막강 클린업트리오를 내세웠다.

멀티플레이어 조영훈과 조동찬을 6·7번에 배치하고 진갑용-김상수로 하위타선을 짜면서 KIA와의 진검승부를 준비했다.

선동열 감독의 현장 복귀 후 삼성을 상대로 한 첫 벤치싸움, 빅 리거 출신의 서재응과 일본 무대에서 돌아온 이승엽 두 베테랑의 맞대결은 비에 사라지고 말았다.

KIA는 LG와의 연습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자 일정을 다시 잡아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 하지만 삼성이 9일 귀국길에 오르면서 호랑이와 사자의 대결은 한국무대로 옮겨 치러지게 됐다.

KIA는 오는 29·30일 시범경기를 통해 삼성을 만나 기싸움을 벌이게 된다. 그리고 4월 10일 삼성을 상대로 2012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 wool@kwangju.co.kr

## 한국 FIFA 랭킹 30위... 日 추월 월드컵 최종예선 '톱시드' 확보

1차전 홈에서 치러 유리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상승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조 편성에서 톱시드를 확보했다.

한국은 7일(한국시간) FIFA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3월 세계랭킹에서 751점을 얻어 30위를 차지했다.

2월의 34위(714점)에서 네 계단 오른 것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호주(20위·868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9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추첨에서 호주와 함께 1번 시드(톱시드)를 확보했다.

톱시드를 받은 덕에 한국은 강팀 호주와 다른 조에 편성되고 1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등 한걸음 유리한 여건에서 최종예선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숙적 일본(33위·740점)과 중동의 강호 이란(51위·574점)이 2번 시드를 받아



자료/FIFA



다.

한국은 2월 랭킹에서는 호주(22위·832점)와 일본(30위·762점)에 이어 세 번째인 34위였으나 3차예선 최종전에서 쿠웨이트를 3-0으로 이기고 일본이 우즈베키스탄에 0-1로 패하는 바람에 순위가 변동이 생겼다.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5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3차 예선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10개 팀이 출전해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된다.

다섯 팀씩 두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타당 8경기씩 치르며 각 조 상위 두 팀씩, 총 네 팀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아시아에 배정된 본선 진출권은 4.5장이기 때문에 각 조 3위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에 도전할 수 있다.

한편 FIFA랭킹 1위 자리는 변함없이 스페인(1천561점)이 차지했다.

네덜란드(1천379점)가 2위로 한계단 올랐고 독일(1천332점)은 2위에서 3위로 내려갔다. / 연합뉴스

이들 중 한 팀과 같은 조에서 만나야 한다.

이전 대회까지 월드컵 최종예선 조 추첨 시드 배정은 직전 월드컵 성적을 토대로 이뤄졌으나 이번 대회부터 조추첨 직전에 발표되는 FIFA 랭킹에 따르는 것으로 바뀌었

## 앤서니는 '죽집계' 기상 예보관

"오후 1시에 비" 정확히 맞춰

KIA의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죽집계 예보관이 됐다.

삼지역인 오키나와의 날씨가 변화무쌍한 곳이다. 하늘이 흐려졌다가 금세 맑아지고 하루에도 몇 차례 비가 오가는 등 예측불허의 날씨다. 바람도 많다.

특히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삼성 캠프지 은나손 아카마 구장은 바닷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다. KIA와 삼성의 연습경기가 예정됐던 7일에도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강한 바람이 불었다.

오전 러닝이 끝난 후 앤서니가 예보관으로 변신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앤서니는 "오늘 날씨가 이래서 기분이 좋지 않다. 1시에 비가 올 것이다"고 큰소리를 쳤다.

확신에 찬 앤서니의 표정에는 이유가 있었다. 앤서니는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쪽 지역에 비가 온다고 했다. 1시에

는 강수확률이 100%라고 나왔다. 비가 반드시 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앤서니의 비예보에 서재응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이날 선발이었던 서재응은 이강철 코치를 향해 "비가 온다는데 오늘 경기 빨리 시작하시죠. 나 컨디션도 진짜 좋은데"라고 외치며 절절 웃었다.

경기 전 오키나와 하늘은 잔뜩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경기 시작 시간인 오후 1시를 조금 앞두고 삼성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늘은 잠잠했다.

하지만 삼성 선발 정인욱이 몸을 풀기 위해 공을 던지는 순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비위치에 있던 선수들은 급히 덕아웃으로 뛰어들어갔다.

5분 뒤 경기 시작을 위해 선수들이 다시 그라운드에 올라갔지만 이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오후 1시10분 연습경기는 우천취소됐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천연잔디 식재를 완료한 광주 무등야구장.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범경기전까지 잔디 양생작업이 진행된다.

## 천연잔디 새 단장 "무등야구장이 확~ 달라졌어요"

광주시는 무등야구장의 천연잔디 시공을 완료하고 27일로 예정된 프로야구 시범경기 전까지 잔디 양생 작업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지난해 10월 기아타이거즈 신인감독으로 취임한 선동열 감독이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인조

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주시가 8억원, 기아구단이 나머지를 부담했다. 새 야구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2년간 구단이 관리를 담당한다.

지난 1월부터 인조잔디, 아스콘 철거, 폐기물 처리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으며,

배수공사,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거쳐 천연잔디 식재를 완료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야구장이 천연잔디로 새롭게 단장돼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연출되고 팬들은 수준 높은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관원기자 cki@kwangju.co.kr



**대호 폭발** 7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시범경기 4회말 무사. 오릭스 이대호가 선두타자로 나와 중견수 펜스 앞에 떨어지는 2루타를 치고 있다. / 연합뉴스